



다목적지 여행에서 관광 목적지 순위의 결정 요인*

- 앵커 포인트 이론의 적용 -

Determinants of Tourism Destination Ranks in Multi-destination Travel
- An Application of Anchor-point Theory -

박 득 희** · 이 계 희*** · 강 상 훈****

Park, Deuk-Hee · Lee, Gye-Hee · Kang, Sang-Hoon

요약 : 관광이 지역 발전을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지역관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역의 관광 환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행객들의 다목적지 여행 패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관광객이 한 번의 여행을 통해서 하나의 이상의 도시를 방문하는 다목적지 여행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리학에서 개발된 앵커 포인트 이론을 적용하여 여행객의 다목적지 여행을 통해서 방문한 관광 목적지들 간의 위계적 구조를 파악하고 이러한 위계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16 국민 여행 실태 조사”의 원자료와 한국관광공사에서 2018년에 공개한 “관광 경쟁력 진단 및 분석”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연결망 분석기법과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향·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분석결과, 해운대구는 내향과 외향 연결정도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나 대한민국의 관광 목적지 가운데 앵커 포인트임을 확인했다. 둘째, 15개의 관광경쟁력 진단 핵심 지표에서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과 관련해서는 관광숙박업객실 수가 유일하게 유의미한 요인이었지만,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점수와 관련해서는 유의미하게 관련되어진 변수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여행객의 다목적지 여행 패턴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하여 앵커 포인트 이론의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국토 공간에 산재해 있는 관광 목적지 간의 연결 관계의 특징 및 연결 관계를 결정하는데 유의미하게 관련되는 변수를 파악했다. 여행객의 다목적지 여행과 관련한 이론적 시사점과 함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시사점 및 향후 연구 과제를 결론에서 제시했다.

핵심어 : 앵커 포인트 이론, 다목적지 여행, 지역 관광 경쟁력, 사회 연결망 분석

ABSTRACT : Tourism has been recognized as a critical power for sound condition of regional economy. It is also essential to understand tourists' multi-destination travel patterns for vitalizing regional tourism, since tourists tend to visit multi-destinations during their single trip. Applying Anchor-point Theor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eterminants related to the ranks in tourism destination

* 본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A2A03068740).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7S1A5A2A03068740).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학과 박사졸업. e-mail: parkdeukhee@gmail.com

Ph.D. Department of Tourism, Kyunghee University.

*** 경희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e-mail: ghlee@khu.ac.kr

Professor, Department of Tourism, Kyunghee University.

**** 동아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조교수(교신저자). e-mail: sanghoon@dau.ac.kr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Dong-A University.

hierarchy, which was computed by social network analysis techniques, such as degree centrality. We used raw data of “2016 Korea National Tourism Survey” and “Regional Tourism Competitiveness Model Index,” conduct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Korea and Korea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respectively. Data were analyzed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revealed that Haeundae was the 1st-ranked tourist destination in both in-degree and out-degree networks, and confirmed to be the anchor-point among other tourist destinations. Meanwhile, out of fifteen tourism competitiveness indicators, only the number of tourism accommodation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in-degree centrality scores (ranks), while no other indicators showed such relationships. The results hold several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regarding travelers’ multi-destination travel behavior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tourism destinations and multi-destination travel of travelers.

Keywords : Anchor-point theory, Multi-destination travel, Regional tourism competitiveness, Social network analysis

I. 서 론

지역관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 통계청, 2019; Bernini & Cracolici, 2015; Kang, Kim & Nicholls, 2014). 이와 관련하여 2019년 4월 정부는 지역관광 거점 육성 방안을 포함하는 지역관광 혁신 전략을 발표했으며(박양우, 2019), 2019년 12월에 열린 제4차 국가 관광전략회의에서는 지역관광을 위한 여행자 중심 지역관광 발전 전략이 제안되었다. 또한, 2020년 1월 “방한 도시 관광의 선도모델 육성을 위한 지역 관광거점도시” 5곳을 선정하고 지역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추진계획이 발표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한편, 지역의 관광경쟁력 강화를 통해 여행객들의 관광수요를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국민관광 진흥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에는 226개의 기초지자체들의 관광경쟁력을 진단하는 등 지역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한국관광공사, 2018).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법이 시도될 수 있지만, 관광현상을 구성하는 주

체인 관광객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기존의 단일 관광 목적지 방문을 전제하는 접근법에서 탈피하여, 한 번의 여행을 통해서 여러 관광 목적지를 방문하는 다목적지 관광과 관련한 연구에 더욱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여행객들은 과거보다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이동 중에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통한 정보의 획득 및 이용은 다목적지 여행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Hwang & Fesemaier, 2011; Kah & Lee, 2016; Kang, Jodice & Norman, 2020; Kang, Lee, Kim & Park, 2018; Park, Kim, Kim & Park, 2019). 한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SNS (social network service)는 개별 관광과 수요자 중심의 관광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김유경 · 박용민 · 송운강 · 양희원, 2016; Chung, Chung & Nam, 2017).

다목적지 여행을 하는 여행객의 행동 이해가 중요한 것은 관광 매력물과 관광 상품 개발, 관광지 방문에 관련한 교통 및 숙박 시설 등과 같은 관광기반 시설 공급 등과 관련한 관광 수요

분석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강상훈·류성욱, 2014; 박득희·이계희·김태구, 2019; 송운강·양희원, 2017; Kang, 2016a; 2016b; Kang *et al.*, 2018; Lue, Crompton & Fesenmaier, 1993; Mckercher & Lau, 2008). 다목적지 여행은 크게 두 가지 접근법으로 연구되고 있다. 하나는 다목적지 여행의 결정 요인과 관련된 변수를 밝혀내는 연구 분야고, 나머지 하나는 다목적지들 간의 관계의 특성을 파악하는 접근법으로서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이라는 자료 분석 방법을 통해서 비교적 최근에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강상훈·류성욱, 2014). Lue *et al.*(1993)에 의해서 다목적지 여행이 최초로 개념화되었지만, 다목적지 여행은 비교적 최근에 많은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Kang, 2016b). 특히,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다목적지 여행에서 방문한 관광지 간 관계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Kang, 2016a).

다목적지 여행에서는 방문 빈도와 순서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중심 목적지와 주변 목적지로 목적지 분포가 위계적으로 형성된다(Kang, 2016a; Kang *et al.*, 2018; Shih, 2006). 그렇지만, 지금까지 관광 목적지 위계를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관광 목적지의 위계를 이해하고, 위계를 결정하는 요인을 찾는 것은 관광 목적지의 관리와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핵심적인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연구는 대단히 부족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연구 목적을 가진다. 첫째, 구조적 관점에서 여행객들이 다수의 도시를 방문함으로써 발생한 도시들 간의 연결 관계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만약, 도시들의 연결 패턴이 위계적 구조를 보인다면, 이러한 위계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분석 결과는 지리학에서 개발된 앵커 포인트 이론을 적용하여 해석될 것

이고 관련 시사점이 결론에서 제시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앵커 포인트 이론

앵커 포인트(anchor-point) 이론은 지리학자인 Golledge(1978)가 사람들의 공간 인식(spatial cognition)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발했다. 앵커 포인트는 특정 지역 안에 있는 다양한 장소들 중에서 핵심 장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앵커 포인트 이론은 각 장소들의 상대적 매력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으로서, 각 장소들의 위계적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데 탁월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관광학 분야에는 Walmsley and Jenkins(1992)가 여행객들이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간 이동을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으로 앵커 포인트 이론을 소개하는 논문을 발표했지만, 관광학 분야에서 다목적지 여행과 관련하여 앵커 포인트 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본 연구의 저자들이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현재까지 Kang *et al.*(2018) 등의 연구만을 확인했다. Kang *et al.*(2018)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들의 다목적지 공간 방문 패턴을 사회연결망분석 기법과 지리정보체계(GIS)를 적용하여 분석했으며, 체류기간에 따라서 앵커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했다.

한번의 여행을 통해서 다수의 목적지를 방문하는 다목적지 여행에서, 앵커 포인트를 파악하는 것은 여행객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제약 안에서(Kang, 2016b), 여행객들이 효율적이고 재미있는 공간 이동 경험이 가능하도록 관광개발 및 마케팅 전략을 도출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여행객이 어떤 식으로 공간을 이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여행객의 전반적인 관광만족

도, 추천의사, 재방문 결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행객의 공간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잘 관리된 다목적지 여행 경험은 관광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사회문화적, 경제적 영향을 나머지 지역으로 확산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방문하는 전국에 산재한 관광지 중에서 어느 곳이 앵커 포인트 관광지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2.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적용한 다목적지 여행 연구

관광지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은 매우 다양하며, 대부분 두 곳 이상의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Kang, 2016a; 2016b; Lue *et al.*, 1993). 다목적지 여행은 한 번의 여행을 통해서 다양한 편익을 얻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결과물로서 이해될 수 있다(강상훈·류성욱, 2014; Kang, 2016b; Lue *et al.*, 1993). 다목적지 여행 대한 연구는 수요자 측면에서의 관광지들 간의 공간적 연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여행객들의 관광지 간 이동 경로 및 이동 경로의 패턴 분류, 관광지의 특징 및 역할 등에 대한 확인은 여행객들의 관광 공간 행동을 이해하는데 선행한다(김원진·홍현철, 2006; 최승묵, 2020; Kang, 2016b).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다목적지 여행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송운강·양희원(2017)은 강원도에 위치한 목적지들을 방문한 여행객들을 계절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여행객으로 구분하고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 중 중심성 분석을 활용하여 4개의 그룹별 여행객들의 다목적지 여행 행동을 비교 분석했

다. 연구결과, 계절에 따라 여행객들의 관광목적지 패턴 및 관광목적지의 특징/역할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강원도 관광의 실무자들에게 강원도 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여행객들의 계절별 관광패턴에 따른 관광발전 방안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Kang *et al.*(2018)은 서울을 방문하는 중국인 개별 여행객들위 체류 기간에 따른 다목적지 여행 패턴의 특징을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 중 중심성 분석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체류기간에 따라 여행객들의 다목적지 여행 패턴에 차이가 있었으며, 체류기간에 따라 앵커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했다. Lee, Chung and Nam(2019)은 방한 외래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관광시 활용한 정보원천에 따라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정보원천 활용 집단으로 분류하고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 중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여 여행객들의 관광목적지 방문패턴을 비교했다. 연구결과를 통해 오프라인 정보원천을 활용했던 여행객들과 비교했을 때 온라인 정보원천을 활용했던 여행객들의 관광목적지 방문패턴은 수도권에 보다 더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Park *et al.*(2019)은 인천을 방문하는 국내 여행객을 거주지를 중심으로 단거리와 장거리 여행객으로 분류 후, 두 집단 간 다목적지 여행 패턴에 차이가 있는지를 부스트랩 t검정(bootstrap paired sample t-test)을 적용하여 분석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했다. 또한, 이동 거리가 목적지들의 중심성 순위와 관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3. 지역의 관광 경쟁력 결정 요인

지역의 관광 경쟁력 결정 요인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는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비록 소수의 연구이지만, 선행 연구들은 경험적 연구보다는 연구 동향 파악 및 관광경쟁력지수에

대한 비판적 접근 등과 같은 주제로 주로 다루졌다. 예를 들어, 김종우·이연택(2010)은 관광클러스터 구성주체들 간의 협력이 지역관광경쟁력 향상에 필요함을 확인했다. 김철원·김은희·임철수(2019)는 지역관광경쟁력 연구 동향을 메타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고, 두 가지 큰 학문적 흐름이 있음을 보고했다. 즉, 관광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델을 개발하고 속성을 파악하는 연구의 흐름과 개발된 관광경쟁력 모델과 속성을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론적 연구로 나눠지는 것을 파악했다. 서헌(2019)은 관광경쟁력지수의 지표에 대한 객관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해석 및 이해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단순하게 관광경쟁력지수를 맹신하기 보다는 다양한 측면의 접근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관광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반면에, 유정섭·이재달(2014)은 관광목적지 접근성을 평가하기 위한 계량적 지표를 개발하여 주요 관광목적지의 접근성을 비교했는데, 해운대와 대천해수욕장이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리적 접근성(예, 교통망)과 관광 매력성에서 우수한 것이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풀이되었다. 오정근(2015)은 도시 관광경쟁력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서울, 부산, 그리고 제주를 대상으로 적용해봤다. 도시 관광경쟁력 평가지표는 4개의 대분류(관광인프라, 관광경제지표, 관광행정지표, 사회·국제화 지표), 숙박시설, 접근성, 가격수준, 국제화여건 등을 포함한 14개의 중분류, 그리고 특급호텔 수, 관광안내소 수, 취향도시 수, 외래관광객 수를 포함한 34개의 소분류로 구분되었다. 도시 관광경쟁력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서울, 부산, 제주를 살펴봤을 때, 서울은 전반적인 관광인프라와 관련하여 경쟁력이 확인되었고, 부산은 관광인프라(회의와 전시시설)와 관광행정지표(관광부문예산)에서 높게 평가되었다. 제주의 경우에는 관광경제지표(가격수준), 관광인프라(쾌적성), 사회·국제화지표(사회안전도)등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Lopes, Muñoz and Alarcón-Urbistondo (2018)은 포르투갈 북부지역에 있는 8개의 관광 지역의 경쟁력을 관광과 여행 경쟁력 지표(tourism and travel competitiveness index)를 적용하여 평가했고, 포르토 메트로폴리탄 지역이 거의 모든 지표에서 강점을 보이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관광 경쟁력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고, 향후 연구와 관련하여 각 지역이 가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적 측면에서 분석을 제안했다. Teixeira, Ferreira, Almeida and Parra-Lopez(2019)는 관광 목적지 선택 과정에 지역 축제의 만족도가 같은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결론적으로 지역의 관광 경쟁력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관광공사(2018)는 지역의 관광경쟁력 강화를 통한 관광 수요의 지역 간 분산 및 국민관광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광경쟁력 진단 모델을 개발했으며, 지역의 관광 경쟁력 결정 요인과 관련한 컨설팅 사업을 수행했었다. 관광경쟁력 진단 모델을 활용하여 전국 지자체 관광경쟁력을 진단하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광역지자체에서는 서울시, 강원도, 제주도가 관광 경쟁력에서 상위의 순위를 보여줬고, 지자체 가운데 관광정책에서는 충북 단양, 관광자원집적 및 관광수요촉진에서는 서울 중구, 포용적 성장에는 인천 강화, 그리고 관광성과에서는 전남 여수가 가장 높은 순위를 보여줬다(한국관광공사, 2018).

4. 연구 질문 및 가설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이다.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서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적용한 다목적지 여행 연구가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고, 여행객의 다목적지 여행 패턴으로 이뤄진 연결망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이론 적용의 부족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관광객의 다목적지 여행 패턴은 어떤

변수들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아래의 연구 질문 1 그리고 2를 개발했으며, 연구 질문 2와 관련한 가설 2개도 제안한다.

연구 질문 1: 내국인 여행객의 다목적지 여행에서 앵커 포인트는 어디인가?

연구 질문 2: 내국인 여행객의 다목적지 여행 연결망 분석을 통해 도출된 내향·외향 연결정도 지수에 따른 도시의 순위는 각 지역의 관광 경쟁력 지표와 관련이 있는가?

가설 1: 각 지역의 관광 경쟁력 지표는 내향 연결정도 지수와 관련이 있다.

가설 2: 각 지역의 관광 경쟁력 지표는 외향 연결정도 지수와 관련이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자료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226개의 기초지자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될 종속 변수를 구축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16 국민 여행 실태 조사”의 원자료가 사용되었고, 독립변수는 한국관광공사에서 2018년에 공개한 “관광 경쟁력 진단 및 분석”의 원자료를 이용했다.

“2016 국민 여행 실태 조사”의 조사 모집단은 2016년 12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가구 및 가구 내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모집단 수는 16,443,544명이었고, 다단계층화확률추출법을 사용하여 실시된 “2016 국민 여행 실태 조사”의 총 응답자 수는

6,309명이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설문 내용은 응답자의 여행 목적, 여행정보 입수경로, 여행 중 방문한 여행지, 여행지에서의 활동, 여행경비, 여행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및 항목별 만족, 행동의도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본 연구는 여행객들의 다목적지 방문 패턴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주요 연구 목적 가운데 하나이면서 종속변수로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2016 국민 여행 실태 조사”의 원자료를 다음과 같이 정제 후 사용했다. 1) 본 연구는 최근 들어 IT의 발전 및 여행객들의 욕구와 요구의 다양화 등의 이유로 과거 공급자 중심의 관광행태에서 수요자 중심 관광행태로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개별 여행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2) 단위여행베이스와 방문지 베이스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 중 개별 여행객들의 여행의 목적이 국내 관광여행이라고 답했던 응답자의 자료에서, 방문한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이 진술된 방문지 베이스 자료(N=5,863)를 도출했다. 이 자료에는 1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만을 방문한 5,506명과 2곳 이상의 기초지자체를 방문한 357명으로 이뤄져있다. 3) 다목적지를 방문한 응답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방문 도시가 두 곳 이상이라고 응답한 357명을 자료를 추출하여 종속 변수 구축을 위한 사회연결망 분석에 최종적으로 활용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2016 국내 여행 실태 조사” 설문지에 있는 설문 항목들 중에서 “여행 목적”, “방문한 여행지” 등에 관한 설문 항목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여행 목적은 ‘이번 여행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되었으며, 응답자는 보기에 제시된 항목들 중 한 개의 응답 안을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방문했던 도시는 ‘이번 여행 중에 방문한 모든 도시를 순서대로 작성하십시오.’라는 질문으로 측정되었고, 응답자는 ‘() 그리고 ()’로 순차적으로 방문한 도시를 응답했다. 이와 같은 항목을

활용하여 자료를 본 연구의 목적에 알맞게 정제하고 분석을 실시했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도시의 중심성 지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단계를 통해서 종속 변수를 만들었다. 첫째,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곳 이상의 도시를 동시에 방문한 도시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여행객들이 두 곳의 도시를 동시에 방문한 도시들만을 추출하여 155개의 도시들을 활용했다. 둘째, 응답자들이 방문한 도시 자료를 이용하여 이진 값(1 또는 0)으로 구성된 도시 연결망(행렬)을 구축했다. 여행객 A가 i 목적지와 j 목적지를 방문했다 목적지 연결망에서 1로서 표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표시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155개 도시 \times 155개 도시 연결망을 구축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여행객들이 순차적으로 도시를 방문한 자료로서 도시 간의 이동에 있어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이다. 이에 여행객들의 도시 간 이동에 따라 발생하는 다목적지 여행패턴을 살펴보기 위해 <표 1>과 같이 도시 매트릭스를 재구성하였다 (Park *et al.*, 2019; Shih, 2006). 이는 여행객들이 155개 기초지자체 도시들에 포함된 도시 A를 처음으로 방문하고, E, B, C, 그리고 최종적으로 D를 순차적으로 방문한 매트릭스를 나타

낸다. 끝으로, 이를 활용하여 도시 연결망을 구축했다.

구축된 도시 간의 연결 관계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를 적용했다. 연결정도 중심성 지수는 연결망 내에서 특정 노드(예, 도시)가 다른 노드들과(예, 도시들) 직접적인 연결 관계의 정도를 계량화한 것이다. 연결정도 중심성 지수는 <표 2>에서 제시된 수식에 의해서 계산될 수 있다. 수집된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중심성 지수가 달라질 수 있다. 즉, 관광객의 이동 패턴과 같이 방향성을 가진 자료를 활용하여 도시 간의 연결망을 분석할 경우에는 도시 간의 연결 관계에서 더욱 구체적인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즉,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과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값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연결망 안에서 각 도시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실무적 시사점이 제시될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즉, 여행객들이 방문한 도시들의 순서를 기록한 자료이다. 따라서 자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온전히 분석에 반영하기 위해서, 내향 연결정도과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모두를 분석했다. 연결정도 중심성 분석은 사회 연결망 분석을 위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인 UCINET 6를 활용했다 (Borgatti, Everett & Freeman, 2002).

독립변수 구축을 위해서 한국관광공사(2018)에서 실시한 “관광 경쟁력 진단 및 분석”의 원자

<표 1> 순차적 이동 방향성을 고려한 도시 매트릭스

	A	B	C	D	E
A	-	0	0	0	1
B	0	-	1	0	0
C	0	0	-	1	0
D	0	0	0	-	0
E	0	1	0	0	-

〈표 2〉 내향/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분석 기법 및 개념

분석 기법	수식	개념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	$C_D^{in}(N_i) = \sum_{j=1}^n x_{ji}, i \neq j$ $C_D^{in}(N_i): \text{노드 } i \text{의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 $n: \text{노드의 개수}$ $\sum_{j=1}^n x_{ji}: \text{노드 } j \text{에서 노드 } i \text{로 향하는 연결 관계의 수}$	연결망 내에서 핵심적인(core) 역할, 명망(prestige), 인기(popularity)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C_D^{out}(N_i) = \sum_{j=1}^n x_{ij}, i \neq j$ $C_D^{out}(N_i): \text{노드 } i \text{의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n: \text{노드의 개수}$ $\sum_{j=1}^n x_{ij}: \text{노드 } i \text{에서 노드 } j \text{로 향하는 연결 관계의 수의 합}$	연결망 내에서 영향력(influential), 개방성(expansiveness)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출처: Park et al.(2019), Shih(2006)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정리

료를 사용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의 〈표 3〉에 제시했다.

이 원자료는 대한민국에 있는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1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관광 경쟁력을 진단한 것으로서 관광정책, 관광자원집적, 관광수요촉진, 포용적 성장, 관광성과 등 5개의 대분류 아래에 중분류, 핵심지표, 세부지표 등 다양한 측정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도시를 대상으로 한 “2016 국민 여행 실태 조사” 자료와의 분석단위를 맞추고,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지역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인 핵심지표 15개의 지수를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관광경쟁력과 관련된 변수들은 관광 육성계획, 관광 지출비중, 관광 공무원비중, 관광 숙박업객실 수, 관광객 이용시설 수, 지역문화관광 축제 수, 이동수단 횡수, 지자체여행사 수, 스마트안내체계지수, 관광 품질인증 종류 수, 무장애 관광지수, 지속가능한 관광 인식 수준, 지역기반관광 운영 횡수, 관광 GRDP 기여율, 만족도 등 15개의

핵심 지표로서 위의 〈표 3〉에서 제시되었다. 15개의 핵심지표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측정되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핵심지표는 다음과 같은 2단계의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여 지수를 도출되었다. 먼저, 정량적, 정성적 산출방식을 통해 산출된 지수를 대상으로 표준화 Z-score를 활용하여 정규분포로 값을 산출했다. 다음으로 Z-score를 활용할 시 평균미만의 점수가 음수로 도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T-score를 활용하여 2차적으로 표준화 값을 도출했다. 본 연구에서는 2단계의 표준화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도출된 지수를 분석에 활용했다.

분석 자료의 특성을 요약하기 위해서 기초통계분석이 실시되었고, 독립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과제 및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기법의 하나인 최소자승회귀분석(OLS)을 적용했으며, 분석에는 SPSS 18.0을 활용했다.

〈표 3〉 관광경쟁력 진단 15개 핵심지표

구분	정의	측정방법
관광육성계획	최근 3년 간 지자체에서 수립하여 공개한 관광관련 육성계획 유무	자료측정: 무 0, 유 1
관광지출비중	지자체 예산지출 중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	지자체 세출 총괄표의 문화·관광 항목 ÷ 세출 총괄표 총계
관광공무원비중	관광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비중	관광전담부서공무원수 ÷ 전체 공무원수
관광숙박업객실 수	지자체에서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 객실 수	관광 숙박업 객실 수
관광객이용시설 수	지자체에서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관광객 이용시설 수	관광진흥법상 관광객 이용시설 수 합계
지역문화관광 축제 수	최근 3년 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시된 지역문화관광 축제 수	지역 문화관광 축제 수 합계
이동수단횡수	서울 기준 각 지자체와 연결된 시외버스 노선의 운행횟수	서울고속터미널, 남서울터미널, 동서울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 주중 & 주말 운행 횟수의 합
지자체여행사수	지자체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여행사 중 해당 지자체 관광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일반, 국내·외 여행사 수	일반, 국내·외 여행사 수 합계
스마트안내체계지수	지자체의 관광수요창출에 기여하는 관광 안내체계 구축 수준	[관광전용 홈페이지 구축유무×5 + 관광안내소 수×4 + Virtual 관광 서비스 제공유무×3 + 관광서비스 App 구축유무×2 + 관광서비스 Social Media 구축유무×1 + 관광지도 게시유무×1] ÷ 16
관광품질인증 종류 수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도에 등록된 사업체 수	인증을 받은 등록사업체 수 합계
STD에대한인식수준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수준	7점척도(리커트 7점 척도: 1점-매우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무장애관광지수	지자체에서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무장애 관광지 수	무장애 관광지 수 합계
지역기반관광운영	최근 3년간 주민참여형태 관광사업 참여 여부	[(관광두레 사업여부)×6 + (테마여행10선 사업 운영 여부)×2 + (걷기여행 길 운영여부)×2] ÷ 10 의 종합지수
관광GRDP기여율	관광부문이 지역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지역총생산)에 미치는 비율	(도매 및 소매업의 총생산 + 숙박 및 음식점업의 총생산 + 운수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총생산) ÷ 지역 내 총 생산
만족도	지자체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만족도	7점척도(리커트 7점 척도: 1점-매우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출처: 한국관광공사(2018)

IV. 실증분석

1. 여행객들의 도시 방문빈도

빈도분석을 활용하여 다목적지 여행에서 방문한 도시들의 순위를 파악했다(〈표 4〉 참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국내 여행객들은 제주도에 위치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가장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양·레저·쇼핑·도심 등의 복합관광 도시로 알려진 부산의 해운대구가 그 다음의 순위로 나타났다. 셋째, 상위 10곳의 빈도를 확인한 결과,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5곳의 지역관광거점 도시들 중 4곳의 지역관광거점 도시(부산, 강릉시, 목포시, 전주시)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빈도분석결과를 통해 국내 여행객들은 한 번의 여행에서 다수의 도시를 방문할 때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에 위치한 도시를 찾는 비중

이 타 지자체에 비해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목적지 여행에서 목적지의 순위를 빈도 분석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광역시 및 강원도 등을 방문하는 경향이 수도권에 비해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빈도 분석은 다목적지 여행의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다. 즉, 다목적지 여행에서는 목적지 간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개별 목적지의 빈도를 파악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방문한 목적지의 순서가 관광객의 관광 경험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강상훈·박득희, 2018).

2. 도시 간의 연결 관계의 특성

도시 간의 연결로 구축된 연결망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회연결망분석 기법의 하나인 연결정도 중심성 지수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도시 연결망의 기본적인 기술 통계량을 살펴보면 〈표 5〉

〈표 4〉 상위 10곳의 도시 방문 빈도

순 위	도 시	빈 도(백분율)
1	제주시, 서귀포시	90(10.9%)
2	해운대구	51(6.2%)
4	여주시	25(3.0%)
5	강릉시	22(2.7%)
6	속초시	20(2.4%)
7	수영구	17(2.1%)
8	동래구, 순천시	15(1.8%)
9	강남구, 영도구, 통영시	13(1.6%)
10	전주시, 목포시	12(1.5%)

〈표 5〉 도시 연결망 기초통계량

구 분	지 수
노드(node)	155
링크(link)	229
밀도(density)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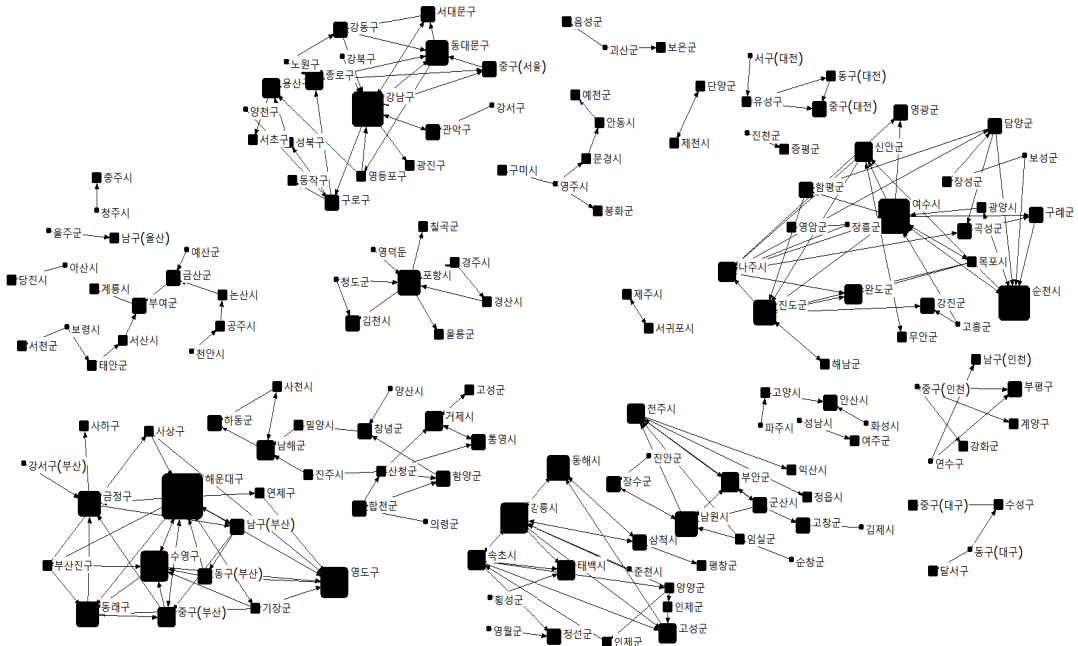
와 같다. 도시 연결망을 구성하고 있는 목적지는 155개로 나타났으며, 도시와 도시의 연결을 의미하는 링크의 개수는 229개로 도출됐다. 또한, 목적지 연결망 내에서 각 목적지 간의 연결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밀도는 0.001로 나타났다. 0에서 1 사이에서 도출되는 밀도 지수에 근거했을 때(Nooy, Mrvar & Batagelj, 2005), 목적지 연결망에서 목적지 간의 연결은 특정 목적지에 집중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연결망의 구조를 시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인 Net Draw(Borgatti, 2002)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목적지 간의 연결 관계를 시각화했고, 그 결과를 <그림 1>에 제시했다. <그림 1>에서 노드의 크기는 연결망 안에서 각 노드가 가진 중심성의 크기를 반영한다. 즉, 중심성 지수가 높을수록 노드의 크기가 크게 시각화 되었다. 또한 연

결 관계가 화살표로 표시된 것은 도시 간의 관계에서 방향성을 의미한다.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운대구(1순위), 그리고 강남구, 여주시, 그리고 순천시(2순위) 등은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in-degree centrality) 점수가 높은 도시로 확인되었다.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 점수가 높은 도시는 도시 연결망 내에서 영향력이 큰 도시, 핵심(core)도시, 유명한 도시, 여행일정에서 마지막으로 방문한 도시로 해석할 수 있다(Kang et al., 2018; Park et al., 2019; Shih, 2006).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out-degree centrality) 점수가 높은 도시는 해운대구(1순위), 그리고 강남구, 속초시, 그리고 여주시(2순위)였다.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점수가 높은 도시는 여행객이 여행을 출발하는 여행 도시(beginning city),



<그림 1> 도시 연결망 시각화 결과

〈표 6〉 도시 연결망 분석결과

순위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		순위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도시	점수		도시	점수
1	해운대구	5.195	1	해운대구	5.844
2	강남구; 여주시; 순천시	3.896	2	강남구; 속초시; 여주시	3.896
3	수영구; 영도구; 강릉시	3.247	3	강릉시; 나주시; 목포시; 진도군	3.247
4	동대문구; 동래구; 동해시; 남원시; 진도군; 포항시	2.597	4	전주시; 포항시; 산천군	2.597
5	용산구; 종로구; 속초시; 고성군; 전주시; 나주시 부안군; 거제시	1.948	5	동대문구, 종로구; 수영구; 양양군; 동해시; 삼척시; 군산시; 담양군; 부산중구	1.948

여행을 마치고 다른 도시로 출발하는 아웃바운드 도시를 나타낸다(박득희·전재균, 2018; D'Agata, Gozzo & Tomaslli, 2013; Shih, 2006).

흥미로운 점은, 해운대구가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 순위와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순위에서 모두 1순위로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해운대구가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 중에서 앵커 포인트로 간주해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해운대 해수욕장과 같은 한국의 대표 해수욕장이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 쇼핑센터, 수산물 시장 등을 포함하여 관광을 위한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한편, 강남구, 여주시, 그리고 강릉시 등이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과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지수 모두에서 2위와 3위에 위치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강남구, 여주시, 그리고 강릉시가 장차 앵커 목적지가 될수 있는 유력한 후보 도시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2. 독립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활용될 관광경쟁력 변수들에 대한 기본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값, 중간값, 그리고 최빈값 등과 같은 기초적

〈표 7〉 기술통계분석 결과

	최소값	최대값	평균	중위수	최빈값	표준편차	왜도	첨도
관광육성계획	103.30	103.30	103.30	103.30	103.30	0.00	.	.
관광지출비중	70.65	163.28	100.30	98.31	70.65	20.54	0.88	0.64
관광공무원비중	75.88	153.45	100.33	97.48	82.65	16.59	1.00	1.19
관광숙박업객실수	4.53	5.30	4.64	4.57	4.53	0.16	2.60	7.47
관광객이용시설수	89.94	178.57	103.86	97.10	94.50	17.80	2.60	7.18
지역문화관광축제수	72.01	164.96	100.89	99.90	104.54	20.84	1.22	1.41
이동수단횟수	78.07	126.65	95.45	88.76	126.65	17.29	0.93	-0.56
지자체여행사수	88.85	200.00	104.94	95.28	90.34	25.19	2.75	7.52
스마트안내체계지수	73.52	193.41	106.93	98.57	91.42	24.42	1.78	3.37
관광품질인증종류수	92.04	200.00	108.54	97.06	92.04	27.00	2.43	5.05
무장애관광지수	83.04	200.00	108.86	100.34	88.80	25.76	1.96	4.12
지속가능한관광인식수준	41.67	150.45	107.70	110.02	99.66	20.19	-0.42	0.78
지역기반관광운영수	83.42	146.71	107.98	108.74	83.42	22.89	0.39	-1.29
관광GRDP기여율	73.38	173.03	104.09	103.30	120.97	19.37	0.58	0.76
만족도	48.21	138.50	108.68	111.06	79.28	18.34	-0.83	0.64

주: Z점수 및 T 점수(Z score & T score)를 활용하여 2단계 표준화 작업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도출된 값

인 통계량을 확인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실시한 다중회귀분석은 자료가 정규분포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왜도와 첨도 값을 통해 정규성을 확인했고, 분석결과는 <표 7>에 제시되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관광숙박업 객실 수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의 왜도 값이 3보다 작고, 첨도 값이 10보다 작게 도출되어 정규성이 확보됨을 확인했다(Kline, 2005). 하지만, “관광 숙박업 객실 수”는 정규분포의 가정이 위반되었다. 따라서 로그 정규 분포화(log-normal distribution)를 실시하고 분석에 활용했다. 또한, “관광육성계획”은 모든 값이 동일한 값으로 도출되어 본 연구의 자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분석에서 제외했다.

3.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에서 종속 변수로 사용될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 점수와 외향 연결망 중심성 점수,

그리고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었다. 먼저,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 지수는 관광숙박업객실수($r=.363, p<.01$)와 가장 높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만족도($r=.340, p<.01$)가 그 뒤를 따랐다. 무장에 관광지 수($r=.284, p<.05$)와 지속가능한관광 인식 수준($r=.258, p<.05$)도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 지수와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지수는 무장에 관광지 수($r=.367, p<.01$), 관광숙박업객실수($r=.363, p<.01$), 만족도($r=.329, p<.01$), 관광 품질인증 종류 수($r=.323, p<.01$), 그리고 지속가능한관광 인식 수준($r=.303, p<.05$) 순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비록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 지수와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가 비슷하게 파악되었지만, “관광 품질인증 종류 수”만이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지수와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특이했다.

<표 8> 상관분석 결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①	1															
②	.419**	1														
③	-.271*	-.293*	1													
④	-.055	-.211	.651**	1												
⑤	.13	.217	-.34	0.173	1											
⑥	-.509**	-.521**	.577**	.443**	-.149	1										
⑦	-.299*	-.363**	.838**	.619**	-.161	.656**	1									
⑧	.227	-.05	.260*	.354**	.131	-.143	.214	1								
⑨	.087	-.17	.568**	.668**	.115	.252*	.592**	.536**	1							
⑩	-.04	-.121	.824**	.649**	.147	.480**	.770**	.402**	.746**	1						
⑪	-.241*	-.265*	.315**	.121	.048	.327**	.287*	.002	.182	.324**	1					
⑫	.344**	.288*	-.129	-.076	.139	-.238	-.166	.401**	.127	.074	-.037	1				
⑬	-.558**	-.360**	.380**	.185	-.046	.583**	.396**	-.197	.250*	.287*	.423**	-.225	1			
⑭	-.068	-.076	.250*	.203	.146	.101	.227	.269*	.359**	.321**	.497**	.155	.308*	1		
⑮	-.199	-.037	.363**	.127	-.055	.016	.152	.199	.21	.284*	.258*	.074	.213	.340**	1	
⑯	-.189	-.049	.363**	.123	.097	.017	.223	.182	.323**	.367**	.303*	.149	.228	.329**	.658**	1

① 관광지출비중, ② 관광공무원비중, ③ 관광숙박업객실수, ④ 관광객이용시설수, ⑤ 지역문화관광 축제 수, ⑥ 이동수단 횟수, ⑦ 지자체여행사 수, ⑧ 스마트안내체계지수, ⑨ 관광 품질인증 종류 수, ⑩ 무장에 관광지 수, ⑪ 지속가능한관광 인식 수준, ⑫ 지역기반관광 운영 횟수, ⑬ 관광 GRDP 기여율, ⑭ 만족도, ⑮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 점수, ⑯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점수 주: *p<.05, **p<.01.

4. 연구과제 검증

1) 관광경쟁력 진단 핵심지표와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 점수 간의 관계 검증(연구질문 1)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총 15개의 관광경쟁력 진단 핵심지표 가운데 4개의 지표가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 점수와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4개의 지표와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 점수 간의 관련성을 더욱 엄격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OLS)을 실시했고, 그 결과가 <표 9>에 제시되었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0.6%로 나타났으며(R²=0.206), 5% 수준에서 유의했다(F=4.033, p=.006). 회귀 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을 공차한계 값과 VIF 값을 통해서 파악했다. 공차한계 값은

0.317 ~ 0.721로 0.1 이상의 값으로 도출되었으며 각각의 독립변수들에 해당되는 분산상승 요소의 값을 나타내는 VIF 값은 1.388 ~ 3.255로 10이하인 것으로 도출되어 독립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문명상·하은호, 2004). 회귀분석에 투입된 총 4개의 독립 변수 가운데, 오직 “관광숙박업객실수”가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 점수와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결론적으로 가설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2) 관광경쟁력 진단 핵심지표와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점수 간의 관계 검증(연구질문 2)

관광경쟁력 진단 핵심지표와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점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표 10> 참고). 회귀 모형의

<표 9> 관광경쟁력 진단 핵심지표와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 점수 간의 관계 검증 결과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다중공선성	
	B	S.E	β			공차한계	VIF
상수	-11.358	5.150		-2.206	.031		
관광숙박업객실수	2.533	1.254	.406	2.020	.048**	.317	3.152
무장애 관광지 수	-.006	.008	-.150	-.734	.466	.307	3.255
지속가능한관광 인식 수준	.002	.007	.049	.365	.717	.714	1.401
만족도	.014	.007	.262	1.967	0.054	.721	1.388

종속변수=내향 연결정도 중심성 점수; R²=0.206; Durbin-Watson = 1.577

*p<0.1, **p<0.05, ***p<0.01.

<표 10> 관광경쟁력 진단 핵심지표와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점수 간의 관계 검증 결과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다중공선성	
	B	S.E	β			공차한계	VIF
상수	-6.507	5.405		-1.204	.233		
관광숙박업객실수	.234	1.313	.191	.939	.351	.314	3.183
관광 품질인증 종류 수	.004	.007	.103	.579	.565	.406	2.460
무장애 관광지 수	.002	.010	.038	.149	.882	.203	4.921
지속가능한관광 인식 수준	.007	.007	.128	.936	.353	.688	1.455
만족도	.010	.008	.168	1.216	.229	.675	1.482

종속변수=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점수

주: *p<0.1, **p<0.05, ***p<0.01.

설명력은 21.1%로($R^2=.211$) 나타났으며, 5% 수준에서 유의했다($F=3.256$, $p=0.011$). 공차한계 값과 VIF값의 확인을 통해서 독립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모형에 투입된 독립변수인 관광 경쟁력 진단 핵심지표("관광숙박업객실수," "관광 품질인증 종류 수," "무장애 관광지 수," "지속 가능한관광 인식 수준," 그리고 "만족도")는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점수와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다. 따라서 가설2는 기각되었다.

V. 결 론

최근 정부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지역관광 육성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관광 목적지인 도시의 속성과 여행객들의 다목적지 여행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자, 다목적지 여행을 통해서 방문한 도시의 순위를 사회연결망의 중심성 지수 기법(연결정도 중심성 지수)을 적용하여 분석 했다. 분석 자료가 여행을 통해서 방문한 도시의 순서를 알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진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과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값을 각각 도출해냈다. 더 나아가,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 점수와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점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 간의 순위를 결정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관광 경쟁력 진단에서 사용한 15개 지표를 적용하여 어떤 지표들이 관광 목적지인 도시의 순위를 결정에 관련이 있는지 확인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향·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분석결과, 해운

대구는 내향과 외향 연결정도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해운대구가 대한민국의 도시 가운데 앵커 포인트로 해석될 수 있는 결과이다. 둘째, 15개의 관광경쟁력 진단 핵심 지표에서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과 관련해서는 관광숙박업객실 수가 유일하게 유의미한 요인이었지만,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 점수와 관련해서는 유의미하게 관련되어진 변수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학술적 시사점을 제안하고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관광학 분야에서 지금까지 극소수의 연구에 활용되었던 앵커 포인트 이론을 사회연결망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검증해 봤다(예, Kang *et al.*, 2018). 특히, 다목적지 여행에 앵커 포인트 이론을 적용해봄으로써 관광의 측면에서 국토 공간에 산재해 있는 도시들 간의 연결 관계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둘째, 여행객들의 다목적지 여행 행동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여행객들의 관광행동에 대한 속성(관광기간, 관광행태, 관광지와의 물리적 거리 등)에 따라 여행객들을 분류하고 사회연결망 분석을 적용하여 여행객들의 여행 패턴 및 목적지들의 특성을 규명했다. 비록,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에서 적용되었던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여행객들의 여행 패턴 및 도시 간의 연결 관계의 특성을 파악했지만, 본 연구는 더 나아가서 도시 간의 연결로 인해서 생성된 도시 순위를 결정하는데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추가로 확인해봤다. 지금까지는 관광객과 방문한 도시로 구성된 자료를 방문한 도시들 간의 관계로 이뤄진 연결망 형태가 가공 후,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인 중심성 지수를 활용하여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과 도시 간의 위계구조를 파악하는데 그쳤다면(예, Irwin & Hughes, 1992), 본 연구에서는 중심성 지수에 의해서 도출된 각 도시의 순위 점수를 결정하는

데 관련이 되는 변수도 함께 밝혀냈다. 즉,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 분석을 적용하여 각 도시의 순위 점수를 계산했다. 그 후, 각 도시의 순위 점수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서, 다목적지 여행의 결과로 나타난 도시의 순위와 지자체 관광경쟁력 진단 지표 간의 관계를 확인해봄으로서 오정근(2015) 그리고 유정섭·이재달(2014)을 포함한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시사점을 더욱 발전시켰다. 이를 통해서 관광학 분야에서 다목적지 여행 행동에 대한 이론적 발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비록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지만, 많은 노력들이 개별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서 확인된 것처럼, 최근 관광 패턴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한 번의 여행을 통해서 하나 이상의 목적지(예컨대, 시, 군, 구)를 방문하는 여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목적지 여행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관광객 행동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다목적지 여행에 대한 이해는 관광개발 및 마케팅과 관련한 정책수립 시 다목적지 여행 경로 상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적 관광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및 유사한 관광정책 사전 검열 등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관광환경을 만드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내국인 여행객들의 다목적지 여행 행동 패턴을 분석했다.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은 타 도시에서 특정 목적지로 이동이 높을 경우 즉, 예를 들어서 <그림 1>에서 화살표를 많이 받는 목적지의 점수가 높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 점수가 높다는 것은 연결망 내

에서 영향력이 큰 도시, 핵심(core)도시, 유명한 도시, 또는 여행일정에서 마지막으로 방문한 도시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경쟁력 지표 중에서 “관광숙박업체 수”만이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 지수와 유의미하게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러한 결과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목적지 중에서 앵커 포인트(중심 관광 목적지)가 되기 위해서는 관광숙박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중요한 관광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관광 활성화와 관련해서, 여행객들의 목적지 이동은 앵커 포인트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된다. 따라서 실무자들은 단일 목적지 방문을 전제로 한 접근법에서 벗어나서, 목적지 간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관광객 및 여행의 속성에 따라서, 다목적지 여행 패턴은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각 목적지별 기능에 있어서도 차별적인 접근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교통 중심의 목적지, 숙박 중심의 목적지 등과 같이 목적지를 기능별로 차별적으로 포지셔닝하는 시도를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서 수립된 연구 질문이 성공적으로 답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이러한 한계점은 후속 연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한다. 먼저 본 연구는 국내 여행객들의 다양한 인구, 사회-경제적, 그리고 여행행태와 같은 속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사회연결망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관광객의 다목적지 행동 패턴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이(예, Hwang, Gretzel & Fesenmaier, 2006; Kang, 2016a; Leung, Wang, Wu, Bai, Stahura & Xie, 2012) 꾸준히 제안한 것처럼, 후속 연구에서는 여행객들의 다목적지 여행 패턴을 연령, 여행행태, 체재기간 등에 따라 분류하여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다목적지 여행행동

에 대한 이해를 더욱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활용한 관광경쟁력 진단 지표와의 관련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한다면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관광공사(2018)에서 개발한 관광경쟁력지표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해봄으로서, 다목적지 여행의 맥락에서 지역의 관광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회귀모형에 투입된 13개 경쟁력 지표 가운데 오직 1개(관광숙박업체 수) 지표만이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 간 연계지수와 같은 다목적지 여행의 특성을 고려한 변수를 개발하여 그 관련성을 살펴본다면, 다목적지 여행의 시대에 각 도시의 관광 경쟁력 제고와 관련한 더욱 의미 있는 시사점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 전체였지만, 공간적 범위를 권역별로(예, 수도권, 강원군,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전남권 등)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한다면 각 권역별 앵커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각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 수립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상훈 · 류성욱(2014).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다목적지 여행 결정. 『관광학연구』, 38(6), 233-252.

강상훈 · 박득희(2018).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행동과 한국 방문 결정 유형: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지역산업연구』, 41(1), 195-216.

김유경 · 박용민 · 송운강 · 양희원(2016). 국내 공항의 네트워크 구조 및 특성 변화에 대한 논의. 『관광레저연구』, 28(4), 245-264.

김원진 · 홍현철(2006). 경기도 동부지역 다목적지 관광활동의 공간적 연계와 행태 특성. 『관

광학연구』, 30(3), 267-291.

김중우 · 이연택(2010). 관광클러스터특성, 협력 및 지역관광경쟁력 간의 관계. 『대한경영학회지』, 23(1), 405-425.

김철원 · 김은희 · 임철관(2019). 지역관광경쟁력 연구 경향 메타 분석. 『MICE관광연구』, 19(2), 185-198. <https://doi.org/10.35176/JMTR.19.2.1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9). 국가 관광전략회의: 여행자 중심 지역관광 발전 전략. Retrieved from <http://www.korea.kr/main.do>

문명상 · 하은호(2004). 『회귀분석: ver 10』. 서울: 민영사.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6 국민여행 실태조사. 서울: _____ (2020). 도시 관광의 선도모델 육성을 위한 관광거점도시 5곳 선정. Retrieved from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MenuCD=0302000000&pSeq=17776

박득희 · 이계희 · 김태구(2019). 이원모드 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정보원천과 관광객들의 다(多)목적지 여행행동 간의 관계 조사: 제주도 지역을 사례로. 『호텔관광연구』, 21(3), 36-48. <http://doi.org/10.31667/jhts.2019.9.80.36>

박득희 · 전재균(2018).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한 내국인 관광객들의 교통수단에 따른 네트워크 비교 연구: 부산 지역 관광목적지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2(3), 39-54. <http://dx.doi.org/10.21298/IJTHR.2018.03.32.3.39>

박양우(2019). 관광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 방향. 『한국관광정책』, 76, 4-7.

서현(2019). 관광경쟁력지수에 대한 탐색적 고찰: 세계경제포럼 관광경쟁력지수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1(9), 159-172. <https://doi.org/10.31336/JTLR.2019.9.31.9.159>

송운강 · 양희원(2017). 계절에 따른 관광 네트워크 차이 분석: 강원도 관광을 중심으로. 『관광

- 연구저널』, 31(2), 31-45. <http://dx.doi.org/10.21298/IJTHR.2017.02.31.2.31>
- 오정근(2015). 도시의 관광경쟁력 평가지표 개발과 한국의 관광도시 분석. 『관광산업연구』, 9(1), 127-142.
- 유정섭 · 이재달(2014). 관광목적지의 접근성 지수 개발 및 평가. 『국제지역연구』, 18(1), 487-505.
- 최승목(2020). 방한 단체관광 여행상품의 목적지 구성 특성별 만족도 분석: 방문 광역지자체 수 및 구성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44(2), 73-92. <http://dx.doi.org/10.17086/JTS.2020.44.2.73.92>
- 통계청(2019). KOSIS 국가통계포털. Retrieved from <https://kosis.kr/index/index.do>
- 한국관광공사(2018). 지자체 관광경쟁력 강화 사업. Retrieved from <https://kto.visitkorea.or.kr/kor/biz/consulting/stance.kto>
- Bernini, C., & Cracolici, M. F. (2015). Demographic change, tourism expenditure and life cycle behaviour. *Tourism Management*, 47, 191-205. <https://doi.org/10.1016/j.tourman.2014.09.016>
- Borgatti, S. P. (2002). *NetDraw software for network visualization*. Lexington, KY: Analytic Technologies.
- Borgatti, S. P., Everett, M. G., & Freeman, L. C. (2002). *Ucinet for windows: Software for social network analysis*. Harvard, MA: analytic technologies.
- Chung, H. C., Chung, N., & Nam, Y. (2017). A social network analysis of tourist movement patterns in blogs: Korean backpackers in Europe. *Sustainability*, 9(12), 2251. <https://doi.org/10.3390/su9122251>
- D'Agata, R., Gozzo, S., & Tomasli, V. (2013). Network analysis approach to map tourism mobility. *Quality & Quantity*, 47(6), 3167-3184. <https://doi.org/10.1007/s11135-012-9710-7>
- Golledge, R. G. (1978). Representing, interpreting, and using cognized environments. *Papers in Regional Science*, 41(1), 169-204. <https://doi.org/10.1111/j.1435-5597.1978.tb01046.x>
- Hwang, Y.-H., & Fesenmaier, D. R. (2011). Unplanned tourist attraction visits by travellers. *Tourism Geographies*, 13(3), 398-416. <https://doi.org/10.1080/14616688.2011.570777>
- Hwang, Y. H., Gretzel, U., & Fesenmaier, D. R. (2006). Multicity trip patterns: Tourists to the United Stat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33(4), 1057-1078. <https://doi.org/10.1016/j.annals.2006.04.004>
- Irwin, M. D., & Hughes, H. L. (1992). Centrality and the structure of urban interaction: Measures, concepts, and applications. *Social Forces*, 71(1), 17-51. <https://doi.org/10.1093/sf/71.1.17>
- Kah, J. A., & Lee, S. H. (2016). A new approach to travel information sources and travel behaviour based on cognitive dissonance theory. *Current Issues in Tourism*, 19(4), 373-393. <https://doi.org/10.1080/13683500.2015.1043246>
- Kang, S., Kim, J., & Nicholls, S. (2014). National tourism policy and spatial patterns of domestic tourism in South Korea. *Journal of Travel Research*, 53(6), 791-804. <https://doi.org/10.1177/0047287514522875>
- Kang, S. (2016a). Tourism destination hierarchy and space-time constraints in a coastal tourism region. *호텔경영학연구*, 25(5), 155-169.
- _____ (2016b). Associations between space-time constraints and spatial patterns of travels. *Annals of Tourism Research*, 61, 127-141. <https://doi.org/10.1016/j.annals.2016.09.010>

- Kang, S., Lee, G., Kim, J., & Park, D. (2018). Identifying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tourist attraction system in South Korea using GIS and network analysis: An application of anchor-point theory. *Journal of Destination Marketing & Management*, 9, 358-370. <https://doi.org/10.1016/j.dmm.2018.04.001>
- Kang, S., Jodice, L. W., & Norman, W. C. (2020). How do tourists search for tourism information via smartphone before and during their trip? *Tourism Recreation Research*, 45(1), 57-68. <https://doi.org/10.1080/02508281.2019.1627076>
- Kline, T. J. (2005). *Psychological testing: A practical approach to design and evaluation*. London, UK: Sage Publications.
- Lee, H., Chung, N., & Nam, Y. (2019). Do on-line information sources really make tourists visit more diverse places? based on the social networking analysis.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56(4), 1376-1390. <https://doi.org/10.1016/j.ipm.2018.01.005>
- Leung, X. Y., Wang, F., Wu, B., Bai, B., Stahura, K. A., & Xie, Z. (2012). A social network analysis of overseas tourist movement patterns in Beijing: The impact of the Olympic Game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14(5), 469-484. <https://doi.org/10.1002/jtr.876>
- Lopes, A. P. F., Muñoz, M. M., & Alarcón-Urbistondo, P. (2018). Regional tourism competitiveness using the PROMETHEE approach. *Annals of Tourism Research*, 73, 1-13. <https://doi.org/10.1016/j.annals.2018.07.003>
- Lue, C., Crompton, J., & Fesenmaier, D. (1993). Conceptualization of multi-destination pleasure trip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0(2), 289-301. [https://doi.org/10.1016/0160-7383\(93\)90056-9](https://doi.org/10.1016/0160-7383(93)90056-9)
- Mckercher, B., & Lau, G. (2008). Movement patterns of tourist within a destination. *Tourism Geographies*, 10(3), 355-374. <https://doi.org/10.1080/14616680802236352>
- Nooy, D. Y., Mrvar, A., & Batagelj, V. (2005). *Exploratory social network analysis with Pajek*, United Kingd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k, D., Kim, J., Kim, W. G., & Park, H. (2019). Does distance matter? Examining the distance effect on tourists' multi-attraction travel behaviors.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36(6), 692-709. <https://doi.org/10.1080/10548408.2019.1624243>
- Shih, H. Y. (2006). Network characteristics of drive tourism destinations: An application of network analysis in tourism. *Tourism Management*, 27(5), 1029-1039. <https://doi.org/10.1016/j.tourman.2005.08.002>
- Teixeira, S. J., Ferreira, J. J., Almeida, A., & Parra-Lopez, E. (2019). Tourist events and satisfaction: A product of regional tourism competitiveness. *Tourism Review*, 74(4), 943-977. <https://doi.org/10.1108/TR-12-2018-0181>
- Walmsley, D. J., & Jenkins, J. M. (1992). Tourism cognitive mapping of unfamiliar environmen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2), 268-286. [https://doi.org/10.1016/0160-7383\(92\)90081-Y](https://doi.org/10.1016/0160-7383(92)90081-Y)

2020년 4월 13일 투고논문 접수

2020년 5월 19일 수정논문 접수

2020년 6월 11일 게재확정 통보

3인 익명심사 후